



유니디자인의 타일 시트지 '보스타일'

“300도 열 견디는 시트지, 4개월새 20만장 팔려”

무역회사에서 수입 업무를 맡았던 김형진 유니디자인 대표는 1993년 '육실용 미끄럼방지 스티커'를 미국에서 수입한 뒤 아파트 등에 판매하면서 신대상사(현 유니디자인)를 창업했다. 3년 뒤 이마트 자재상표(PB) 제품을 공급하면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2001년 유니디자인으로 사명을 바꿨다.

그는 중식당에서 화덕 앞에 하얀 은박지를 덕지덕지 붙인 것을 보고 '열에 강하면서도 쉽게 이를 질을 닦아낼 수 있는 타일 시트' 아이디어를 얻었다. 알루미늄 포일을 소재로 만든 '보스타일'은 지난해 12월 '으뜸중기제품'으로 선정됐다.

◆접착력과 내구성 뛰어난 보스타일의 강점은 '타일로 시공하는 것보다 저렴하면서 실용적'이라는 데 있다. 물기를 제거한 욕실 벽면과 바다, 주방 싱크대 뒷벽 등에 붙일 수 있다.

김 대표는 "일반 테이프 접착력이 400g(2.54cm×2.54cm 면적 기준)을 견디는 정도라면 보스타일은 1300g에서 1500g까지 나온다"며 "기름이나 음식물이 잘 튀는 주방은 300도까지 견디면서도 행주로 쉽게 닦아낼 수 있는 보스타일이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하다가 질리면 떼어낸 뒤 다른 디자인의 타일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타일보다 실용적"이라고 덧붙였다.

보스타일은 알루미늄 포일에 타일 무늬를 인쇄한 뒤 에폭시를 타일처럼 봉긋하게 부어 열로 건조시켜 만든다. 접착면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이기에 단열 기능도 갖췄다.

김 대표는 "처음에 알루미늄 포일에 인쇄하기가 어려워 개발에만 1년가량 걸렸고, 특허도 등록했

식당 주방서 아이디어 얻어 알루미늄 포일 소재 쓰고 닦기 편한 타일 무늬 적용

접착면은 단열 기능 주방·욕실에도 부착 美·대만에 수출

다"며 "지난해 9월 출시한 뒤 현재까지 국내에서만 20만장가량 팔렸다"고 했다.

보스타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보통 79.3㎡ 집에 싱크대 뒷벽 전체를 붙이는 데 보스타일 3박스(1박스에 4장·3만 8000원), 105.7㎡ 규모 집에는 4박스면 된다.

◆미국 일본 등 수출 시작 김 대표는 국내 판매와 함께 해외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일본 두 곳의 수입업체에 샘플을



김형진 유니디자인 대표가 경기 부천시 춘의동 본사에서 주방·욕실 등에 간편하게 붙이는 타일 시트지 '보스타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냈고 미국과 대만 한 곳씩에도 수출하기 시작했다"며 "월마트와 이케아에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유통회사와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유니디자인 수출액은 2만 달러(약 2170만원)였고 올해는 50만~1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니디자인은 지난해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유니디자인은 신제품으로 디자인 타일 시트도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현재 보스타일은 네모난 기

본 디자인에 색깔과 타일 크기를 달리한 종류로 50가지 정도 있다"며 "이달 말에는 호리병이나 공예

품들의 무늬를 넣은 디자인타일 시트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민지혜기자 spop@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세비안의 수납일체형 샤워기 '가로본능 UP' (031)765-3110 △라이프온랩의 밴드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시아' 070-4603-7474 △메디레포의 '메디레포이싱' 070-4193-8525 △유니디자인의 보스타일 (032)612-9519

이케아 대항마 키우는 한샘 생활소품 전문매장 만든다

'한샘홈' 매장 3곳 운영

국내 1위 가구기업 한샘이 스웨덴 가구 공룡 '이케아'에 맞서기 위해 생활소품 전문 브랜드 '한샘홈(미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약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생활소품 실적을 올해 2000억원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이케아가 낮은 가격에 소품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가구는 이케아보다 좋은 품질과 가격이라 평가하지만 소품류까지 경쟁 우위에 있으려면 우리도 단종 매장 형태로 유통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1년여간 공들여 준비했다. 현재 약 2000개인 소품류를 2~3배가량 늘리는 게 목표"라며 "이케아가 3개 점포(광명·일산·서울 강동)를 다 열 경우 소품류 매출만 5000억원가량 된다고 추정한다"며 "우리가 곧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샘은 내달 서울 공릉동에 1호 매장을 열고, 3월 부산 등에 시범적으로 3개 매장을 열기로 했다. 현재 인테리어사업부의 생활용품 상품기획자(MD)와 마케팅, 전시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소속 20여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품 개발과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한샘홈은 기존 몇천 평짜리 플래그십(대형 매장)과 달리 661~992㎡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급화 한국화 차별화'를 내걸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다른 브랜드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한샘이 생활소품 전문매장을 여는 것은 이케아를 겨냥함과 동시에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부문을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다. 한샘은 지난해 플래그십(사진)에서 600억원, 대리점 250억원, 한샘몰 150억원 등 소품류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1위 가구업체 한샘이 생활소품 전문 브랜드를 만들면 다른 가구업체뿐 아니라 자주 무인양품 H&M 홈 자라룸 니코앤드 같은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지혜기자 spop@hankyung.com

“모뉴엘 사태 이후 中企 수출자금 지원 위축”

구로디지털밸리 기업인들 정흥원 총리에 대책 건의

“모뉴엘 파산 사건 이후 수출자금 지원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연대보증 요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밸리에 있는 중·중소기업인들은 20일 이곳을 찾은 정흥원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쏟아냈다. 카메라모듈 생산업체로 지난해 2억달러 수출탑을 받은

엔씨텍의 민동욱 사장은 “가전업체 모뉴엘이 가짜 수출을 하다가 파산한 뒤 중·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선의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80개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바이오넷의 강동주 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융시장에서 대부분 담보와 대표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자금을 빌릴 때 금융권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가 많아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2011년에 창업한 사물인터넷 전문기업인 디자인스인 우인구 사장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제도나 펀드는 마련돼 있으나 투자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구로디지털밸리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며 “각 부처가 기업들의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자리를 함께한 한정화 중소기업청 차장을 “창업 후 3년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죽음의 계곡’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창업기업에 자금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공장설립 농지부담금 면제기간 3년→5년으로

중소기업청은 개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3일부터 공장설립 시 부과하는 농지부담금 면제기간이 현행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창업 3년 이내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 산란자원 조성비’가 추가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추가영기자 gychu@hankyung.com

작년 벤처펀드 조성액 사상 최대

62% 늘어난 2조5382억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조성된 벤처펀드 규모가 2조538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2013년(1조5679억원)보다 61.9%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민간 출자액은 1조 5177억원으로 전년(8599억원)보다 76.5% 늘었다. 작년에 새로 조성된 펀드 수도 82개로 전년(54개) 대비 51.8%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벤처펀드는 총 481개, 12조1906억원 규모였다.

벤처투자액은 1조6393억원, 투자업체 수는 901개로 전년보다 각

각 18.4%, 19.3%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 비중은 문화콘텐츠(27.3%), 정보통신(26.4%), 생명공학(17.9%), 일반제조(14.2%), 서비스(12.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바일·정보기술(IT)은 8.8%포인트, 전기·기계·장비 등 일반 제조업은 8.3%포인트 감소했다.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한 금액 비중은 30.8%로 전년보다 4.1%포인트, 3~7년 기업은 24.8%로 1.3%포인트 늘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신규 벤처투자액 목표를 1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추가영기자 gychu@hankyung.com

서강대학교 중소벤처 경영컨설팅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과정 9기 모집

자금조달 전문 컨설턴트 사관학교

지식산업 시대 평생직업! 경영컨설팅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과정, 우수한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서강대학교 자금조달 과정은 중소, 벤처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컨설팅에 관한 고급 전문컨설턴트 양성 사관학교 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10년 후 전망 좋은 직업 1위에 경영컨설팅’ (매경 2013.12.06)

과정특징	1. 과정 수료 후 컨설팅 법인 설립 시 자문, 취업 시 취업지도 @ 단 1회 강의만으로도 가치를 느끼고 도움이 되는 실용적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 수강하시는 분의 기업에 대한 자체 자금조달 지도 3. 청년창업, 장년창업, 여성창업 기술창업, 융합창업 등 신규창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지도 4. 18인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금조달 실무중심 강의
모집요강	1. 지원자격: 중소벤처 자금조달 컨설턴트에 관심 있는 30세 이상 일반인 남녀, CEO, CFO, 현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 예비창업인, 전 현직 금융인, 퇴직인, 여성 및 전문 직업인에게 더욱 유리함. 2. 모집인원: 25명(모집인원 마감 즉시 종료) 9기부터 예정 인원외 선발하지 않습니다. 3. 모집기간: 1월 30일 0시 까지(온라인 접수) 4. 전형방법: 지원신청 서류 선착순 서류심사 후 합격자 개별통지 → 등록금 납부 5. 지원서류: 지원신청서(소정양식-사진 첨부)- 주요 내용, 성실 작성 6. 지원신청: https://scec.sogang.ac.kr/ → 회원가입 → 전문교육과정 →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과정 → 수강신청서 작성 업로드
교육안내	1. 교육기간: 2015. 2. 03 ~ 2015. 06. 30 (매주 화,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3. 교육장소: 서강대학교(아루페관 400호실) 2. 전체 44강으로 구성 워크숍 포함 총 66시간 4. 등록금납부: 300만원, 우리은행: 1006-501-277213 예금주: 서강대학교
수료특전 및 비전	1. 수료 후 컨설팅그룹에서 유급 활동 기회 2. 수료 후 컨설팅법인 설립 시 지원 및 자문 3. 수업 중 수강생에 대한 자금조달 자문 및 지도 4. 서강대학교 명의 수료증 - 80% 이상 출석 조건 5.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민간자격증 수여 6.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동기회 네트워크 7.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정회원
기타사항	무료주차, 저녁식사 제공(17: 55 ~ 18: 25까지 식사)

서강대학교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과정 동문 조찬세미나

- 목적: 자금조달 과정 수료 동문을 위한 지속적인 인적 교류, 전문 지식과 정보교환, 전문인 초창강의, 우의와 친목 도모도 함께 합니다.
- 참가대상: 서강대학교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과정을 수료한 동문 전체
- 운영: 상설운영- 매월 조찬세미나 개최
- 주최: 서강대학교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 과정
- 참석 사전예약: 문자로 반드시 참석여부와 함께 입금순으로 예약이 됩니다. (명찰 등 사전 준비에 필수)
- 일시: 2015.01.27.07:00~8:30
- 장소: 마포가든호텔 2층 로즈홀
- 참가비: 5만원(사전 입금)
- 계좌번호: SC제일은행 375-20-250357 천형성
- 초청강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조찬세미나 문의: 010-2670-4488